

특별기획

이지영 익산부시장, 사회책임 미들채 방문 현장행진

익산시 이지영 부시장이 3일 간편 웰빙 식품의 선두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미들채(유)를 현장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업회사법인 미들채(유)는 올해 5월 18일 합라면에 신사육을 마련하고, 롯데마트 116개 전국 모든 지점에 6월 중순경 입점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날 이지영 부시장 대표는 건의사항으로 자금과 인력지원을 요청했으며, 익산시는 전라북도 창업지원팀과 함께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지영 부시장은 "미들채가 눈앞의 이익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취약계층 고용과 기업의 이익을 사회와 함께 나누는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간다고 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민간단체·시민 참여자 불법광고물 정리 가로환경 조성

군산시가 민간단체 및 시민 참여를 통한 불법광고물 근절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달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퇴치를 위해 '불법광고물 시민감시단'과 '(사)전라북도육묘광고협회 군산시지부', 건설교통국 및 27개 읍면동 직원 등 200여명이 합동으로 군산시 전역에서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을 펼쳤다.

이번 정비를 통해 시내전역에 불법으로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 1,100여장과 전단 및 벽보 1,500여장을 철거하고 임각만 및 에어리프트 318건에 대하여 계고장을 발부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이 구성된 시민감시단을 활용 불법광고물 정비 및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31일 까지 신청·접수

익산시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을 8월31일 까지 받는다.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사업은 반복적인 농작업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3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중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만㎡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을 경영하는 가구의 여성 농업인이 대상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등을 준비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한 뒤 신청서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은행을 통해 카드도 발급받고, 1인당 연간 12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한도 내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스포츠용품, 미용실, 안경, 화장품, 영화관,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올 1월~4월까지 업무추진비 공개

시장·부시장 등 1억 6105만원 사용

군산시장과 부시장 등이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평균 1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업무추진비 규모와 사용은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가 지난달 28일 '업무추진비 사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평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군산시 시장과 부시장 국·소장 등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면 모두 347건에 1억6105만원으로 시장과 부시장 국·소장 등 11명이 하루 평균 13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셈이다.

이 가운데 식사비가 208건에 5326만원, 선물비용이 120건에 1억53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시장 5566만7920원(107건, 식사비 1786만4500원, 격려&선물비 3662만7400원)

▲부시장 3458만8460원(91건, 식사비 1118만000원, 격려&선물비 2280만8500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자치행정국장 722만8000원 ▲주민복지국장 1120만6000원 ▲경제항만국장 1324만6000원 ▲건설교통국장 1545만9100원 ▲의사국장 427만5000원 등이다.

이와 함께 ▲시설사업소장 399만7600원 ▲보건소장 649만4500원 ▲수도사업소장 520만5000원 ▲농업기술센터장 369만8900원 등이다.

또 같은 기간 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95건에 2293만8200원으로 집계됐다.

의장 902만7900원(39건, 식사비 557만4900원, 격려&선물비 245만3000원), 부의장 331만7700원(17건, 식사비 126만200원, 격려&선물비 145만5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운영위원장 332만8000원(5건, 식사비 60만5000원, 격려&선물비 271만

5800원), 예결위원장 43만5000원(3건, 식사비 43만5000원), 행정복지위원장 309만3600원(7건, 식사비 120만원, 격려&선물비 189만3600원), 경제건설위원장 374만7700원(24건, 식사비 320만7700원, 격려&선물비 54만000원) 등이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군산시 업무추진비는 현재 시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시의회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무추진비에 대한 투명한 집행과 사용내역 공개를 통해 식사비나 선물 지출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위한 직무수행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유권자인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선 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시장 업무추진비는 1억6449만원으로 나타났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도시재생선도지역 보조사업 신청자 모집

주거재생 지원·근대역사경관 회복 위한 일반건축물 리모델링

군산시는 월명동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주거재생 지원과 근대역사경관 회복을 위한 근대·일반건축물 리모델링 보조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도시재생선도지역 내 건축물 소유자 또는 신청공고일 기준 향후 5년 이상 장기임대계약자이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건축물의 준공년도를 기준으로 원형적 가치를 존중한 수선, 대수선, 증축, 개축에 대해 리모델링 총공사비(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포함)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리모델링 공사범위는 원형성 회복을

위한 철거공사,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초 및 구조체 개보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외부 수선 등이다.

지원규모는 근대건축물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일반건축물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리모델링 보조사업에 대한 홍보와 설명을 위하여 오는 10일 오후 3시 월명동 근대교육관(군산시 구영6길 22-6)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오는 18일과 19일 접수기간동안 '1차 정량적 평가 신청서'를 작성해 군산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문화재 해설사 위촉식

군산시는 오는 13일부터 펼쳐지는 군산야행(群山夜行) 기간 동안 군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문화재를 해설하기 위한 어린이·청소년 문화재 해설사 위촉식을 지난 2일 열었다.

군산시는 초등학교 문화재 해설사 25명과 군산여자고등학교 역사동아리(은고지신), 군산제일고등학교 역사동아리(국향)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촉장을 수여했다.

어린이·청소년 문화재 해설사는 군산야행 기간 동안 문화재 해설사가 되어 군산지역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 아이들의 시각으로 설명한다.

이들은 오는 13일과 14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구 군산제일고, 구 일본 제8은행 군산지점,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구 조선식량연구소 군산 신항동 일본식가옥, 군산 동국사에 배치되어 관광객에게 문화재 해설을 펼칠 예정이다.



김봉곤 문화예술과장은 "지역학생들이 문화재 해설사로서 역할을 맡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익산시가 2016년 범죄예방환경 개선사업(CPTED)에 선정된 가운데 8월부터 11월까지 신동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익산시는 법무부에서 주관해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와 함께 시행하는 '2016년 범죄예방환경 개선사업(CPTED)'에 특히 법무부 역점사업지로 선정되어 복합초 주변을 비롯한 신동 일대의 생활환경과 주거안전 여건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이번 범죄예방 개선사업은 이춘석

국회의원이 관련 예산과 유지에 공을 들여 선정된 사업으로 범죄 유발요인 사전제거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입 주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게 된다.

물리적 환경개선에는 여성안심택배 보관함 CCTV·보안등·반사경 등 방범시설물, 복합초 옐로카펫설치, 여성안심킴이 편의점 운영 등 골목길 환경개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3일부터 열리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국무총리실 국책연구기관 건축공간연구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지역주민과 상인 및 서포터

그룹(시의원,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복합초,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공무원 등)이 참석해 7~8회 정도 진행된다.

범죄예방교육 등의 내용으로 주민역량을 강화시키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트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돼 신동 일원을 밝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걷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익산=장왕원기자

코레일 전지역 '내일로 티켓' 발매 10주년 기념 PNB 수제 초코파이 사은품 증정

코레일 전지역(역장 김남용)은 청춘들의 자유 기차여행 '내일로 티켓' 발매 10주년을 기념하여 전 지역의 명품로 자리잡은 PNB 수제 초코파이를 내일로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은품 제공은 한 때, 대기업 제과점의 골목상권 진출과 상품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가치를 타고 전주를 찾은 내일러들의 입소문을 타고 PNB 풍년제과의 명성을 전국적으로 되찾게 해준 내일러들의 고마움에 보답하고자한 PNB 풍년제과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김남용 전지역장은 "내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지역 지자체를 대신하여 전주 PNB 풍년제과에서 이런 값진 사은품을 지원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젊은 내일러들에게 기차여행에 더하여 영원히 기억에 남는 전주에서의 달콤한 추억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전지역도 철도를 이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로 티켓 10주년 기념 사은품인 'PNB 수제 초코파이'는 코레일 전북본부 주요역(전주역, 익산역, 정읍역, 남원역)을 발권역으로 하는 내일러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해당 역에서 무료 교환권을 받아 PNB 풍년제과 본점 또는 분점(한옥마을점, 전주역점 등)에서 초코파이와 교환할 수 있다.

한편, 민25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새마을호 이하 일반열차를 5일 또는 7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내일로 티켓은 올해로 출시 10주년이 되었으며, 2015년 전 지역에서 발권된 매수는 약 1만매에 이른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립도서관 어린이 영화 4편 선정 상영

군산시립도서관은 무더운 여름을 맞아 어린이와 온 가족이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 영화 4편을 선정해 상영한다.

이달 영화 상영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4월에는 바닷속 절대 권력의 막강 카리스마를 가진 상어 대부와 영웅을 꿈꾸는 작은 물고기와의 한판 승부라는 그린 '사건'을, 11월에는 노래하고 탭댄스를 추는 펭귄들을 볼 수 있는 판뮤지컬 애니메이션 '해피피트'를 상영한다. 18일에는 귀여운 상어 줄리와

영롱 먹보 상어 빅이 어린이 동생들을 구하려 육지로 떠나는 '줄리의 육지 대모험'을, 25일에는 우주로봇 씨어들과 힘을 합쳐 우주해적들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스페이스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우주로봇 씨어'를 상영한다.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재 있는 날인 31일 오후 4시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로맨스 영화 '그해 여름'을 상영할 예정이다.

영화상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립도서관(☎454-5637)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 글로벌 시대의 식생활 교사연수 실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식생활교육기관은 전북지역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대의 식생활 특수' 분야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전북도교육청 특수 분야 직무연수로 지정받은 이번 연수는 원광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 식생활교육전북네트워크에서 지원하는 '교사 식생활교육 직무연수 프로그램'에 선정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총 30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농식품부와 전북도교육청,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원광대학교 중국공자학원, 익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교육과정은 국가 농산물 소비

촉진 정책, 외국 식생활교육 실례, 한식의 세계화, 한의학을 활용한 식생활, 다문화 학부모가 바라는 자녀의 식생활 등으로 꾸며졌다.

특히 한식의 세계화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식생활 관련 외국인 전문가가 바라보는 한식의 우수한 점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미국, 중국, 일본에서의 한식 세계화 방안 등으로 구성해 호응을 얻었으며, 미국인이 바라보는 한식은 제임스 폴콕스키(우송정보대학) 교수, 중국인이 바라보는 한식은 유항전(원광대학교 공자학원) 원장, 일본인이 바라보는 한식은 나가무라 요코(영양사) 씨가 초빙됐다.

/익산=장왕원기자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00인 토론회

군산시 서수면(면장 이삼규)은 3일 서수초등학교 대강당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00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주민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100인 토론회에는 남녀노소 여러 계층의 지역주민이 참여해 서수면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여는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

이날 제시된 의견은 전문가 검토를 통해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사업에 반드시 선정돼 살기 좋은 서수면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수면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주 목요일 간담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강사 초빙 특강(3회), 선진지 견학(2회), 지역주민·학교, 다문화가정 및 귀농·귀촌인 설문조사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